

염종현 경기도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염 의원, "지방정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강조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dwkang@ajunews.com) | 입력 : 2021-10-25 06:09 | 수정 : 2021-10-25 06:09



염종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은 25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세변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조성택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인조 회장(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백선기 이사장(부천시민교육센터), 강영식 회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백지운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준영 국장(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분석과 남북교류협력의 상황별 전략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다각화, 지역단위 종합개발 지원사업 추진, 사회통합 역량제고, 법적 기반 마련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국면전환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 필요, '지역간 교류협력' 개념 사용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방안 수립 필요, 지자체의 공동협력기금 조성 및 개발협력 추진, 지자체와 대학의 통일평화 교육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사회 통합의 실험특구,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염 위원장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세변화의 단초를 지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현안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dwkang@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